

흑석9 조합사무실, 전-현 집행부 갈등에 문도 못 열어

르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

전 집행부 조합사무실 개방 반발
“본안소송 남아있고 합의도 없어”

조합장 직무대행 지지 조합원
“미룰수록 재개발 정상화 차질”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 간 갈등으로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흑석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시 사무실 과 동네 전경



/정연우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 집행부가 제기한 소송이 각각되면서 그동안 폐쇄된 조합사무실이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의 강력한 반발로 불발된 것. 흑석9구역은 그동안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했지만 사무실 폐쇄로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5일 오전 찾은 흑석9구역 재개발 사무실은 조합원들로 입구가 막혀 건물 안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있어 사무실 개방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게 기존 조합의 입

장이다.

흑석9구역은 현재 소정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날 사무실 건물 앞은 직무대행을 지지하는 조합원과 전 집행부를 지지하는 조합원 간 말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흑석9구역 조합원 A씨는 “기존 조합원들과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사무실을 개방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며 “동의를 충분히 얻고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흑석9구역 조합은 지난 5월 임시총회를 열고 전 집행부를 해임했다. 당시 전체 조합원 689명 중 366명이 표결에 참여해 96.7%가 해임에 찬성했다. 해임된 전 집행부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흑석9구역 전 조합장 등 6명이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

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집행부 해임에 찬성한 조합원 B씨는 “재판부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전 집행부의 해임을 결정할 것”이라며 “본안소송은 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사무실 개방을 미룰수록 조합장 선출 건 등을 포함해 재개발사업 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 집행부의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기존 시공사였던 롯데건설과도 완전히 결별하게 됐다. 조합은 지난 8월 롯데건설 측에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지만 롯데건설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조합은 최고 28층 21개동 1538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일대는 2종 일반주거지로 최고 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울시와 동작구의 인허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정혜 직무대행은 “추후 입장을 다시 정리해 조합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흑석9구역은 중앙대학교 인근 흑석동 90일대의 약 9만4000㎡를 재개발해 아파트 153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흑석9구역을 포함한 흑석뉴타운 지역은 한강을 바라보는 지리적 이점으로 ‘제2의 강남’이란 별칭을 얻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관망세 지속...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폭 축소

전국 월간 주택 매매가 0.42% ↑
서울 25개구 전체 상승폭 줄어

8·4 공급대책 영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전월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42% 상승했으며 ▲수도권(0.52%→0.43%) ▲서울(0.42%→0.27%) ▲지방(0.43%→0.41%) ▲5대광역시(0.44%→0.62%) ▲8개도(0.26%→0.21%) ▲세종(7.69%→3.83%)은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0.27%)은 25개구 전체가 상승폭이 축소됐다.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0.42%)는 전농·답십리동역세권 단지, 중랑(0.38%)·성북구(0.36%)는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 광진구(0.35%)는 교육환경 양호한 광장동, 노원구(0.31%)는 중계·하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관악구(0.34%)는 봉천·신림동 등 역세권, 영등포구(0.32%)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여의도동, 강서구(0.31%)는 방화·염창·가양동 등 소형평형, 강남(0.16%)·서초(0.13%)·송파구(0.11%)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일

부 재건축은 상승했으나 그 외는 보유세 부담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밖에 경기(0.60%)는 그간 상승폭 높았던 지역(하남·구리·광명시 등) 위주로 축소됐지만 인천(0.21%)은 교통 및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방은 세종(3.83%)이 입주물량 감소와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으로, 대전(1.19%)은 혁신도시 개발호재 영향 등으로, 대구(0.72%)는 학군이 양호한 수성구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제주(-0.09%)는 경기침체 우려와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정연우 기자

LH, 바른 언어문화 조성 캠페인 “바른 우리말 써요” 건설용어 퀴즈 개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바른 우리말 사용 캠페인을 시행하고, 오는 9일 한글날까지 ‘바른 우리말 건설용어 퀴즈’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LH는 건설현장의 쉽고 바른 언어문화 조성을 위해 작년 10월 국립국어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건설현장에 고착된 일본어투 건설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건설현장 우리말 바꾸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근로자가 보다 쉽게 우리말을 접할 수 있도록 일본어투 건설용어와 이를 다듬은 우리말을 표기한 손수건 6000개를 전국 400여개 LH 건설현장에 전달했다.

/정연우 기자

대우건설, 올 3.5만가구 이상 공급 계획

3분기 까지 2만5994가구 분양
4분기엔 ‘감일 푸르지오’ 등 공급

대우건설이 올해 3만5000가구 이상의 주거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3분기까지 2만5994가구를 분양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등 1만7961가구를 공급했고, 지방에서도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등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를 포함해 8033가구의 주거상품을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4분기에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와 감일 푸르지오 등 실수요층이 풍부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과 같이 분양을 확정하지 못한 사업들이 연



감일 푸르지오 투시도. /대우건설

내 일정을 확정하게 되면 공급물량이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인허가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정확한 분양 실적은 연말에 확정되겠지만, 현재 계획 물량 외에 미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들이 분양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민간공급 1위 실적을 달성하기에 무난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애니팡4’ 출시 직후 3대마켓 1위 올 광고 매출액 전년比 58% 증가

株라쿨라의 종목

모바일게임 제작 | 선데이토즈 |

애니팡·스누피 등 브랜드 파워 갖춰
애니팡4 등 신작 통해 해외매출 확대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5일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면서 디즈니, 카툰네트워크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해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선데이토즈’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토즈는 지난 2009년 설립된 모바일 게임 제작사다. 주요 게임으로는 ▲애니팡 시리즈 ▲디즈니 팝 타운 ▲스누피 틀린그림찾기 ▲아쿠아 스토리 등이 있다. 2020년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비중은 모바일 게임 84%, 광고 16%로 추정된다.

최 연구원은 “‘애니팡’, ‘스누피’, ‘디즈니’ 등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유명 IP를 활용해 신규 유저 모집이 용이하고 수출시에도 마케팅 효과를 누리는 장점이 있다”면서 “올해 ‘애니팡4’를 포함해 신작 5개가 출시되고, 해외 매출이 확대되고 있어 본격 성장기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5조357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모바일 게임 매출액이 7조2579억원으로 게임산업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태블릿PC 보급 확대, 다양한 오픈마켓 출현으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선데이토즈가 2012년에 선보인 대표작 ‘애니팡’은 출시 75일 만에 앱 다운로드 건수 2000만건, 1일 이용자 수 10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면서 “이후 확고한 브랜드 기반을 가진 애니팡 IP를 활용해 후속작을 성공적으로 론칭,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올해 6월 30일 공개된 신작 ‘애니팡4’가 선데이토즈의 하반기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다. ‘애니팡4’는 기존 시리즈와 다르게 대전 모드, 길드 시스템 등을 추가해 소셜 게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출시 직후 3대 오픈마켓(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윈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 기록했고, 또한 ‘애니팡4’의 흥행으로 앱광고단가가 높아져 2020년 광고매출액은 전년보다 58.1% 증가한 201억원이 될 것으로 최 연구원은 추정했다.

선데이토즈는 지난해 10월 디즈니IP를 활용한 퍼즐 게임 ‘디즈니 팝 타운’ 아시아 버전을 론칭했다. 출시 1주년을 맞이한 현재 한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태국 등에서 4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고, 평균 이용자 수는 약 40만명에 이른다.

리서치알음이 예상하는 올해 선데이토즈의 영업이익은 175억원으로 전년보다 534.4% 증가할 것으로 봤다. 매출 역시 45.8% 늘어난 1230억원으로 전망했다. 적정주가는 2020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1985원에 주가수익비율(PER) 17배를 적용, 적정주가 3만3800원을 제시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